

도움행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공감과 공정성이 도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 용 훈 류 리 나[†] 한 성 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에 해당하는 공감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해당하는 공정성이 도움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156명의 학생에게 불공정지각을 달리하는 대상(외국인근로자/일반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각각 제시하고, 도움행동의도를 측정 한 후에 개인특질 변인인 공감과 공정성을 측정하였다. 공감, 공정성, 대상이 전체 도움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개인특질인 공감과 공정성 두 변인 모두 전체 도움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공감과 대상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불공정지각 수준이 다른 대상에 따라 도움행동의도에 공감과 공정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일반인(불공정지각 저) 대상에서는 공감이 도움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외국인근로자(불공정지각 고) 대상에서는 공정성이 도움행동의도와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움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공감과 공정성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도움행동, 공감, 공정성, 불공정지각

* 본 논문은 김용훈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2011)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교신저자 : 류리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E-mail : traene02@hanmail.net

도움행동은 여러 학자들과 그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크게 행동적 측면, 동기적 측면, 보상기대의 측면, 그리고 희생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Dawkins, 1976; Krebs, 1982; Macaulay et al., 1982; Underwood & Moore, 1982). 우선 행동적 측면에서의 도움행동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손실을 감수하여 타인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정의되며(Dawkins, 1976), 이것은 도움행동의 행위 자체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여 도움행동을 정의한 Underwood와 Moore (1982)는 도움행동을 자신보다 타인을 더 이롭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올 수 있는 보상을 기대하고 타인을 돕는 것을 도움행동으로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Macaulay 등(1982)은 도움행동을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희생적 측면에서 도움행동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복지를 희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수행된 행동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Krebs, 1982). 살펴본 바와 같이 관점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 도움행동을 정의하는 데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정의들을 토대로 도움행동을 ‘타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이익을 다소 포기하고서라도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연구에는 측정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직접적인 행동의 관찰 대신 행동의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Krebs, 1975). 본 연구

또한 도움행동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닌 도움행동의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도움행동 수준을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도덕심리학: 정의지향적 도덕성과 배려지향적 도덕성

도움행동을 하는 당사자에게 도움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과 손해를 피하려는 이기적인 욕구가 충돌하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의 도덕적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Carlo, 2006; Carlo, Eisenberg & Knight, 1992; Eisenberg, 1982).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나 도덕적 추론능력, 도덕성의 발달 등을 연구하는 도덕심리학의 광범위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데에는 정의지향적 도덕성과 배려지향적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또한 사람들은 도덕적 갈등에 처했을 때 일반적으로 정의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언어와 사고방식(정의추론과 배려추론)을 사용하면서 순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도움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도덕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러한 도덕추론의 과정을 겪는다고 한다(Gilligan & Attanucci, 1988; Jaffee & Hyde, 2000; Walker, 1991).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이끄는 정의추론과 배려추론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배려추론에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고자 하는 동정적 이해와 타인에 대한 감정이나 동정심에서 비롯된 관심을 중시하지만, 정의추론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 도덕적 권리나 책임과 같은 공정성의 원리에 근거한 의무감을 중시한다(정옥분, 광경화, 2003). 인간의 도덕적 행동

을 설명하는데 있어 배려추론과 정의추론은 상호보완적이며 도덕적 인간이란 정의와 배려의 도덕성을 함께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도움행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정의적 관점에서의 접근보다는 배려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배려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Noddings, 1984),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와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공감은 배려의 차원에서 오랫동안 이타행위의 유발기제로 설명되어 왔다(Batson, Fultz & Schoenrode, 1987; Hoffman, 1982). 특히 Batson과 Coke(1981)의 공감-이타주의 가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움행동연구에서 공감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박성희, 1997).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모두 강조된 것에 반해, 도덕적 행동의 하나인 도움행동에 있어서는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관련된 공감에 관한 연구만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근거한 변인에 대한 탐색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과 함께 정의지향적 도덕성 변인인 공정성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감과 도움행동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해서 항상 도움행동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도움행동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상황의 특성(Clark & Word, 1974; Latane & Darley, 1970)이나 행위자의 정서(Isen & Simmonds 1978; Kazdin & Bryan 1971), 도움행동 수혜자의 특성

(Miller, 1977; Lerner, 1975) 그리고 행위자의 개인차(Batson & Coke, 1981; Dovidio, 1984; Gouldner, 1960; Schwartz & Howard, 1982)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도움행동의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가운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분야가 바로 공감이다.

공감(empathy)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Davis, 1994; Hoffman, 1977), 공감-이타주의 가설을 주창한 Batson 등(1987)은 공감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한 결과로서 경험하는 염려, 자비, 온정 등 타인지향적인 느낌들이며 공감이야말로 인간의 이타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주요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Batson과 Coke(1981)는 또한 공감을 지각된 타인의 복지에 의해 우려난, 대상이 느끼고 있는 것과 일치된 정서라고 정의하였다.

공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도움행동의 본질에 대해 1970년대 Hoffman(1977)과 Batson, Darley와 Coke(1978)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관찰하게 되면 대리적 각성이 유발되고 그 각성이 고통을 받는 사람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면 공감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Schachter, 1964; Stotland, 1969), 이러한 공감적 정서가 도움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Krebs(1975)는 도움행동의 결정요인이 곤경에 처한 타인에 대한 공감수준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Krebs는 전기쇼크를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피험자들의 공감수준을 조작한 후, 그 대상이 보다 약한 쇼크를 받도록 하기 위해 피험자 자신의 이득을 희생하려는 의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도움행동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또한 공감의 하위 요인인 관점 취하기 (perspective taking),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이 도움행동의 선행변인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Unger & Thummuluri, 1997), 공감은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Sturmer, Snyder, Kropp, & Siem, 2006).

그러나 곤경에 처한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도움행동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을 때는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움행동이 감소하기도 한다(심성욱, 1999; 조은진, 1997; Kurtz & Grummon, 1972). 또한 도움행동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할수록 공감-이타행동의 고리가 약해지기도 하며(Batson, 1991),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해 그 고통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공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도움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hn, 1990).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공감은 일반적으로 도움행동을 예측해주는 좋은 변인이 되지만,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대상 또는 자신과 유사하지 않은 대상 등에 대한 도움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줄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공정성과 도움행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이 도덕적 행동을 하는 데에는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모두 필요하다. 배려적 관점에서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온 개념이 공감이라면, 정의지향적 도덕성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공정성

(fairness)을 들 수 있다. 공정성은 Kohlberg(1973)에 의해서 정교화 되고 Gilligan(1982)에 의해서 그 의미가 확대된 정의윤리의 주요 개념이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공정성을 정의(justice)라는 큰 덕목에 포함시키고, 공정성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적절한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 사적인 감정에 따라 타인에 관한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 등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였다. 공정함과 관련된 심리적 강점들을 지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모든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 등의 문항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eterson & Seligman, 2004).

공정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더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적 자극을 주며, 그들의 공동체에 더 깊이 관여하고, 젊은이들에게 더 양심적으로 대하는 등의 친사회적인 행동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st, Deemer, Barnett, Spickelmier & Volker, 1986). 또한 공정성과 유사한 개념인 형평성이나 정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처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lster, Walster & Berscheid, 1978). 즉, 공정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 도움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정성이 자신의 이익

을 감소시키는 상황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자원분배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정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Dickmann, Samuels, Ross, & Bazerman, 1997), 업무에 대한 초과지급을 받는 것보다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ritchard, Dunnette, & Jorgenson, 1972). Lerner(1980)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공정해지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세상은 정의롭다고 믿으려 하고 정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도움행동과 관련하여 Montada와 Schneider(1989)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기 위해 자원의 재분배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부당한 분배에 대한 인지와 관련된 것으로, 공정해지려는 동기를 지닌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을 할 경우 그를 도우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특질인 공정성이 사회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되는 대상의 도움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노력, 기술 등 자신이 조직에 투자한 것과 임금, 지위 등 보상의 비율을 타인의 투자-보상 비율과 비교하여 두 비율이 같으면 공정성을 지각하고, 서로 다르면 불공정성을 지각한다고 한다(Adams, 1965). 도움행동 행위자는 도움행동 수혜자가 그들의 투자(노동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를 통해 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지각하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 외국인근로자이다(전영평, 한승주, 2006). 외국

인근로자들은 실제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사회적, 정책적으로도 차별을 받는 소수집단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 지각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일반인(낮은 불공정지각)과 외국인근로자(높은 불공정지각) 대상을 나누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대상을 접할 때, 도움행동의도가 개인특질인 공감과 공정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움행동에 미치는 공감, 공정성, 대상의 영향과 각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 개인차 변인인 공감과 공정성 모두 도움행동의도를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수준을 달리하는 대상에 따라 도움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일반인에 대해서 행해지는 도움행동의 경우 공감이 도움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 되고, 자신과 유사성은 작지만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인지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도움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방 법

실험참가자

164명의 K대학교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무응답이 있는 표본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총 156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실험대상자

들의 연령은 18세에서 32세까지로, 평균 만 22.87($SD=3.25$)세였다.

절차 및 측정도구

실험참가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고 5점 Likert 척도로 도움행동의도를 보고하였다. 참가자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건과 (남 43명, 여 43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남 28명, 여 42명)에 무선 할당되었다. 도움행동 수혜자에 대한 불공정지각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조작 점검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공정성과 공감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인구사회적변인(성별, 연령, 종교)에 응답하였고. 설문 소요시간은 약 5~10분이었다.

공감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94)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박성희(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공감의 원척도는 각 7문항씩을 포함하는 4개의 하위 차원 즉,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상상하기(fantasy),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특질인 공감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하위요인인 공감적 관심 7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거나 관심을 보이

는 특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 한다. 정서적 공감 문항의 예로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자주 그를 염려하는 따뜻한 감정이 일어난다’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에 대해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역채점 문항)’ 등이 있다. 공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71로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문항으로 공감을 측정한 다른 연구(심성옥, 1999)에서 나타난 신뢰도와 유사한 수치이다.

공정성

공정성 측정은 Peterson과 Seligman(2004)의 이론적 분류체계를 근거로 권석만(2009)이 만든 한국 대학생의 성격적 강점 검사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성격적 강점 검사는 각 10 문항을 포함하는 2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공정성은 그 중 하나의 하위척도에 해당된다.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한 성격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정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적절한 방식으로 대우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성 문항의 예로는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비록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를 공평하게 대한다’ 등이 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77로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이는 공정성을 측정한 다른 연구(Park, Peterson & Seligman, 2006)에서 나타난 신뢰도와 유사한 수치이다.

시나리오

본 연구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도움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도덕적 갈등 상황은 도움행동을 하였을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기존의 도움행동 연구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Kohlberg, 1975) 도움행동 대상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도에 따른 참가자들의 도움행동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개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두 시나리오는 도움행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동일하게 묘사하였지만, 수혜자를 일반인과 외국인근로자로 각 조건에서 다르게 제시하였다. 단, 외국인근로자 조건에서 실험참가자의 불공정지각을 높이기 위해 ‘행색이 남루한’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였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지금 오전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수업을 들으러 급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여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려는 사람이(외국인근로자 조건: 행색이 남루한 외국인근로자가) 보입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자, 당신은 그 사람이(외국인근로자)가 한 손에 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는 지금 그 사람(외국인근로자)과 당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당신이라면 위의 사람을 돕겠습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도움행동의도를 보고 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시나리오에 제시된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대상(낮은 불공정지각 / 높은 불공정지각)에 따른 조작 점검이 이루어졌다. 조작 점검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낮은 불공정지각 ~ 5=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높은 불공정지각)로, 1점에 가까울수록 불공정지각이 낮은 대상임을 의미하고 5점에 가까울수록 불공정지각이 높은 대상임을 의미한다.

결 과

조작점검

조작점검에 대한 *t*-test 분석결과, 일반인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불공정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25, df=154, p<.05$). 실험참가자들은 일반인집단($M=2.93, SD=1.20$)보다 외국인근로자집단($M=3.33, SD=1.00$)이 더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공정성 및 대상이 도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인 전체 도움행동의도의 평균은 $2.78(N=156, SD=.972)$ 이었다. 일반인에 대한 도움행동의도의 평균은 $2.80(N=86, SD=1.0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도움행동의도의 평균 $2.76(N=70, SD=.86)$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표 1. 도움행동의도에 대한 공감, 공정성 및 대상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	변인	B	SE B	β	t	R^2	adj. R^2	F
1	(상수)	2.786	.078		35.843***	.013	.006	1.975
	성별	-.109	.078	-.113	-1.405*			
2	(상수)	2.776	.076		36.748***	.072	.060	5.917**
	성별	-.135	.076	-.139	-1.771			
	공감	.242	.077	.245	3.122**			
3	(상수)	2.778	.075		37.267***	.108	.085	4.590**
	성별	-.089	.078	-.092	-1.145			
	공감(A)	.240	.076	.243	3.137**			
	공정성(B)	.190	.076	.197	2.490*			
	대상(C)	-.003	.075	-.003	-.040			
4	(상수)	2.771	.072		38.365***	.180	.142	4.656***
	성별	-.089	.076	-.092	-1.182			
	A	.248	.075	.251	3.322**			
	B	.173	.074	.179	2.320*			
	C	.006	.073	.006	.079			
	A * B	.044	.069	.049	.642			
	A * C	-.269	.075	-.273	-3.606***			
	B * C	-.002	.072	-.002	-.033			
5	(상수)	2.778	.072		38.500***	.191	.147	4.346***
	성별	-.084	.075	-.087	-1.120			
	A	.234	.075	.236	3.109**			
	B	.181	.074	.187	2.432*			
	C	.007	.073	.007	.095			
	A * B	.026	.070	.029	.379			
	A * C	-.279	.075	-.283	-3.734***			
	B * C	-.003	.072	-.004	-.048			
A * B * C	.096	.069	.108	1.401				

* $p < .05$, ** $p < .01$, *** $p < .001$

상에 따른 도움행동의도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88, df=154, p=.774$).

공감과 공정성 및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에 따른 불공정지각이 전체 도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각각의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록 공감과 공정성 및 대상 변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들 변인을 조합하여 상호작용 변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각각의 독립변인들을 센터링(centering)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박광배, 2003).

성별에 따라 전체 도움행동의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다 확실히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 모형에서 성별 변인을 투입하였다. 종속변인을 도움행동의도로 두고 공감을 2단계 모형에 투입하였고, 3단계 모형에는 주효과 변인인 공감, 공정성, 대상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4단계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곱으로 생성한 이원상호작용 변인들을 투입하였으며, 5단계에서는 3가지 예측 변인들의 곱으로 삼원상호작용 변인을 만들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예측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다. 검증 계수로는 Tolerance를 사용하였다. 모든 변인들은 1에 매우 가까운 값을 보여(성별 1.094; A 1.052; B 1.079; C 1.016; A*B 1.089; A*C 1.042; B*C 1.021; A*B*C 1.087),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공감과 공정성의 주효과와 공감과 대상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을 넣은 1단계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2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모형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단계: $F_{(2,153)}=5.917, p<.01$, 조정된 $R^2=.060$; 3단계: $F_{(4,151)}=4.590, p<.01$, 조정된 $R^2=.085$; 4단계: $F_{(7,148)}=4.656, p<.001$, 조정된 $R^2=.142$; 5단계: $F_{(8,147)}=4.346, p<.001$, 조정된 $R^2=.147$). 2단계 모형에서는 공감이 도움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45, p<.001$) 5.4%의 설명량을 가졌다. 새로운 변인들을 투입할 때마다 모형이 가지는 도움행동의 설명량은 계속 증가하였는데, 주효과 변인들을 투입한 3단계 모형에서는 공감($\beta=.243, p<.001$)과 공정성($\beta=.197, p<.05$)이 도움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5%의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원상호작용 변인들을 투입한 4단계 모형에서는 공감($\beta=.251, p<.001$), 공정성($\beta=.179, p<.05$) 및 공감과 대상 간의 상호작용효과($\beta=-.273, p<.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5.7%의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삼원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5단계 모형에서는 공감($\beta=.236, p<.01$), 공정성($\beta=.187, p<.05$) 및 공감과 대상 간의 상호작용효과($\beta=-.283, p<.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도움행동의도에 대한 전체 설명량이 0.5% 증가하였다. 공감과 공정성 모두 전체 도움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예측변인인 공감, 공정성, 대상을 통해 전체 도움행동의도의 약 14.1%가 설명되었다. 그 외 각 모형에서의 나머지 변인들은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5단계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공감과 대상의 상호작용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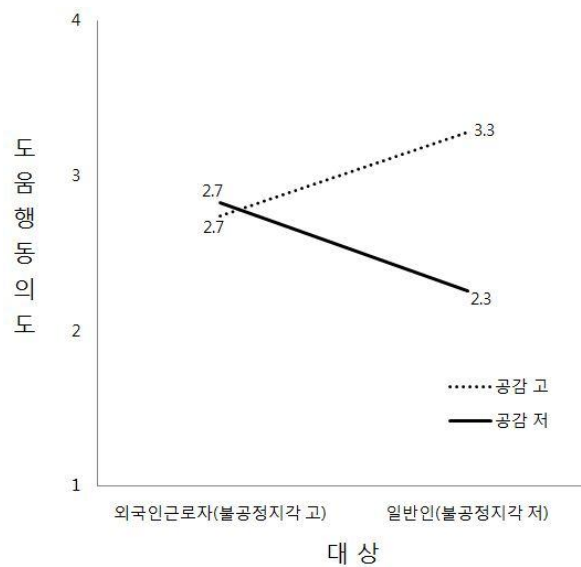


그림 1. 도움행동의도에 대한 공감과 대상의 상호작용효과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효과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5단계 회귀모형의 방정식에 4가지 점수를 대입하여 완성하였다.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 = 2.778 + 0.234X_1 + 0.007X_2 - 0.279X_1X_2$. 여기에 4가지 점수, 즉 공감과 불공정지각 변인 각각의 평균에서 각각의 1표준편차를 더한 값과 뺀 값($M \pm SD$)을 사용하였다(장훈, 한성열, 2010; 최승혁, 허태균, 2011 참고). 공감과 대상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도움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도움행동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불공정지각이 높은 대상인 외국인근로자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경우, 도움행동의도는 공감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일반인과 외국인근로자)에 따라 공감과 공정성이 도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도움행동 대상에 따라 공감과 공정성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대상에 따라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인에서 공감, 공정성 및 도움행동의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움행동의도와 공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r = .443, p < .01$), 나머지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과 공정성이 일반인의 도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입력(Enter)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은 일반인의 도움행동의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_{(2,83)} = 12.173, p < .001$, 조정된 $R^2 = .208$). 이 모형에서 유의미한 변인은 공감

표 2. 공감과 공정성이 일반인의 도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예언변인	β	adj. R^2	df	F
도움행동의도	공감	.434***	.208	2, 83	12.173***
	공정성	.176			

*** $p < .001$

이었다($\beta = .434, p < .001$). 따라서 일반인이 도움 요청 시, 행위자의 개인특질인 공감이 도움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외국인근로자에서 공감, 공정성 및 도움행동의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움행동의도와 공정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r = .243, p < .05$),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지 않았다.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공감과 공정성이 도움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분석 결과 모형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_{(2,67)} = 2.176, p = .121$, 조정된 $R^2 = .033$).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도움 요청 시, 행위자의 개인특질인 공정성이 도움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도덕심리학의 관점에서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도움행동은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의추론과 배려추론을 통해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한다. 그동안 배려지향적 관점에서 공감이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대상에 따라 그 영향이 가변적인 공감만으로 도움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의지향적 도덕성과 관련된 변인인 공정성이 공감과 더불어 도움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대상의 특성에 따라 도움행동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불공정지각이 높고 낮은 대상에 따른 공감과 공정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 공감 및 공정성이 전체 도움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공감과 공정성 두 변인 모두 전체 도움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로 도움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려차원의 교육뿐 아니라 정의차원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배려차원의 교육과 함께,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존중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당한 손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정

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공감과 대상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도움행동의도가 증가하였고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도움행동의도가 감소하였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도움행동의도 수준이 공감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와 일관되게 공감이 도움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아닌 다른 요인이 도움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소수자들에 대한 도움행동을 촉발하는 요인 탐색을 위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불공정지각 수준을 달리하는 각각의 도움행동 대상에 따라 공감, 공정성 및 도움행동의도와 관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인 대상에서는 공감이 도움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근로자 대상에서는 공정성이 도움행동의도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지만 공정성이 도움행동의도를 예측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로 불공정지각과 공정성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한 처우를 받는 대상을 통해 불공정지각 조건을 설정하였다. 비록 조작점검을 통해 불공정지각에서는 대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을 통한 조작뿐만 아니라 대상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인 상황을 조작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인지를 활성화

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공정성의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감과 대상의 상호작용효과 및 대상에 따른 공감과 공정성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몇몇 도움행동 연구들은 유사성이 도움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제안된 혈연선택이론(kin selection theory)은 유기체가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이타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가정하는데(차재연, 김혜리, 2008; Hamilton, 1964; Hamilton & Axelrod, 1981) 진화상의 최선 전략에 따라 유전적으로 가까운 정도인 유전적 근친도가 높거나 유사성이 큰 대상에게 이타행동이 보다 많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유사성과 유사성에 영향을 받는 공감에 의해서만 도움행동이 결정된다면 일반인들과 신체적 유사성을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나 여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도움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불공정하다고 지각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감의 영향이 현저히 감소하고 행위자의 공정성이 도움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정성 배양 교육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도움행동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라 하겠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긍정심리학의 여러 가지 성격 강점 중 공정성을 제시하면서 아직은 도덕적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정의추론과 배려추론 간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며, 두 개의 윤리가 언제 딜레마를 인식하는 대조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을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 도덕적 맥락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폭을 더해주는 상호보완

적 관점들이 될 것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정의추론과 배려추론에서 중시되는 개념인 공감과 공정성 변인이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있어 어떻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또한 기존 도움행동 연구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구범위가 그친 데 반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까지 도움행동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기존의 도움행동연구에서의 주요 변인이었던 공감의 역할을 다시 검증했을 뿐 아니라 도움행동의도에 있어 공감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예측해주는 공정성 변인의 역할을 탐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결과를 우리 사회의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참가자들이 응답한 도움행동의도와 실제 행동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Yuker(1995)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측정된 태도와 실제 행동은 일반적인 질문보다 시나리오를 통한 질문을 함으로써 상당히 비슷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답자들의 실제 행동을 잘 예측하도록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도움행동의도를 측정하였으나 여전히 그 한계는 남아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도움행동의도는 윤리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Eagly & Chaiken, 1993). 물론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실하거나 정직하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분석에서 제외하거

나 산포도 상에서 나타난 극단치의 값들을 제거하고 분석을 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추가하여 공변량분석을 통해 사회적 바람직성이 가지는 가외변수를 제거하고 분석한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불공정지각에 따라 대상을 달리 조작하여 도움행동의도를 분석하였는데 조작된 변수인 불공정지각 이외에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충분히 통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상에 따라 도움행동의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불공정지각이 높고 낮음 때문이 아니라 도움행동 대상의 외형(남루한 행색)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불공정지각 수준이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대상과 일반인 대상을 각각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것만으로는 불공정성지각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불공정한 상황을 조작하는 스크립트들을 사용하는 등 상황적 조작을 통해 그 효과를 검토한다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날 공동체의 단위가 커지면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상호간 도움행동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움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지연, 2001). 이러한 때 도움행동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의 사회적 기여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요즘 사회에 도움행동을 확산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9). 서울대학교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성격적 강점검사의 개발.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연구보고서.
- 박광배 (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행동. 서울: 문음사.
- 심성옥 (1999).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예비연구.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8, 141-175.
- 이지연 (2001). 청소년상담에서 이타주의 이해의 중요성. 청소년상담연구, 9, 158-188.
- 장 훈, 한성열 (2010). 몰입(flow) 기능의 재구성: 몰입과 행복 관계에 대한 타인맥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43-62.
- 전영평, 한승주 (2006). 소수자로서 외국인노동자: 정책 갈등 분석. 한국행정연구, 15(20), 157-184.
- 정옥분, 광경화 (2003).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서울: 집문당.
- 조은진 (1997). 한국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사회인지 발달과의 관계. 교육학 연구, 35(5), 219-238.
- 차재연, 김혜리 (2008). 혈연과 비혈연을 향한 이타주의의 발달: 진화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351-371.
- 최승혁, 허태균 (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형사처벌: 공정세상 믿음 및 기대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13-125.
-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pp.267-299). New York: Academic.
- Batson, C. D. (1991). *The altruism question: Toward a social-psychological answer*. Hillsdale, NJ: Erlbaum.
- Batson, C. D., & Coke, J. S. (1981). Empathy: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In J. P. Rushton & R. M. Sorrentino(Eds.), *Altruistic and helping behavior: Social, personality,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tson, C. D., Darley, J. M., & Coke, J. S. (1978). Altruism and human kindness: Internal and external determinants of helping behavior. In L. Pervin & M. Lewis(Eds.), *Perspectives in interpersonal psychology*. New York: Plenum Press.
- Batson, C. D., Fultz, J., & Schoenrode, P. A. (1987). Distress and empathy: Two qualitatively distinct vicarious emotions with different motivational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55, 19-39.
- Carlo, G. (2006). Care-based and altruistically-based morality.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551-579). Mahwah, NJ: Erlbaum.
- Carlo, G., Eisenberg, N., & Knight, G. P. (1992). Anobjective measure of adolescents' prosocial moral reason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 331-349.
- Clark, R. D., & Word, L. E. (1974). Where is the apathetic bystander?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mer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29(3), 279-287.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Dawkins, S. R. (1976).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 Diekmann, K. A., Samuels, S. M., Ross, L., & Bazerman, M. H. (1997). Self-interest and fairness in problems of resource allocation: Allocators versus recipi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61-1074.
- Dovidio, J. F. (1984). Helping behavior and altruism: An empirical and conceptual overview.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7, 361-427.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Eisenberg, N. (1982). The development of reasoning regarding pro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 (1988). Two moral orientations: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 223-237.
- Gouldner, A. W. (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61-178.
- Hamilton, W. D. (1964). The genetical evolution of social behavior I and II.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7, 1-15.
- Hamilton, W. D., & Axelrod, R. (1981).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211, 1390-1396.
- Hoffman, M. L. (1977). Empathy, its development and prosocial implication, In H. E. Howe, Jr. & C. B. Keasey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2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 Hoffman, M. 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and prosocial behavior* (pp.281-313). New York: Academic Press.
- Isen, A. M., & Simmonds, S. (1978). The effect of feeling good on helping task that is incompatible with good mood, *Social Psychology*, 41, 346-349.
- Jaffee, S., & Hyde, J. S. (2000). Gender differences in moral orientat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6, 703-726.
- Kazdin, A. E. & Bryan, J. H. (1971). Competence and volunteer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1), 87-97.
- Kohlberg, L. (1973). The claim to moral adequacy of a highest stage of moral judgement. *Journal of Psychology*, 70, 630-646.
- Kohlberg, L. (1975). Moral stages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development approach.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pp.31-53).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ohn, A. (1990). *The brighter side of human nature*. New York: Basic Books.
- Krebs, D. (1975). Empathy and altru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134-1146.
- Krebs, D. (1982). Altruism - a rational approach.

-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53-76). NY: Academic Press.
- Kurtz, R. R., & Grummon, D. L. (1972). Different approaches to the measurement of therapist empathy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rapy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1), 106-115.
- Latane, B., & Darley, J. M. (1970). *The unresponsive bystander: Why doesn't he help?* NY: Appleton-Crofts.
- Lerner, M. J. (1975).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An introdu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1*, 1-19.
- Lerner, M. J. (1980). *The belief in a just world: A fundamental delusion*. New York: Plenum Press.
- Macaulay, J. R., & Berkowitz, L. (1982).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Miller, D. T. (1977). Altruism and threat to a belief in a just worl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2), 113-124.
- Montada, L., & Schneider, A. (1989). Justice and emotional reactions to the disadvantaged. *Social Justice Research, 3*, 313-344.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6). Character strengths in fifty-four nations and the fifty US state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118-129.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Pritchard, R. D., Dunnette, M. D., & Jorgenson, D. O. (1972) Effects of perceptions of equity and inequity on worker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6*, 75-94.
- Rest, J. R., Deemer, D., Barnett, R., Spickelmier, J., & Volker, J. (1986). Life experiences and developmental pathways. In J. R. Rest (Ed.),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pp.28-58). New York: Praeger.
- Schachter, S. (1964). The interaction of cognitive and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1). New York: Academic Press.
- Schwartz, S. H., & Howard, J. (1982). Helping and cooperation, A self-based motivational model. In V. J. Derlega & J. Grzelak (Eds.),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 Theories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 Stotland, E. (1969). Exploratory investigations of empath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 New York: Academic Press.
- Sturmer, S., Snyder, M., Kropp, A., & Siem, B. (2006). Empathy-motivated helping: The moderating role of group membershi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943-956.
- Underwood, B., & Moore, B. (1982). Perspective 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Unger, L. S., & Thumhuri, L. K. (1997). Trait empathy and continuous helping: The case of voluntarism.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 Personality*, 12, 785-800.
- Walker, L. J. (1991). Sex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In W. Kurtines & J. L.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pp. 333-364). Hillsdale, NJ: Erlbaum.
- Walster, E., Walster, G., &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Boston: Allyn and Bacon.
- Yuker, H. E. (1995). Attitudes. In A. E. Dell-Orto, & R. P. Marinelli (Eds.), *Encyclopedia of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pp.94-99). New York: Macmillan.
- 논문투고일 : 2012. 3. 2.
1차 심사일 : 2012. 3. 15.
2차 심사일 : 2012. 5. 9.
게재확정일 : 2012. 7. 5.

**The Way of the Increase in Helping Behavior:
The Effects of Empathy and Fairness
on Intention for Helping Behavior**

YongHun Kim

Lina Liw

SeongYeul Han

Korea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helping behavior in our society has been increasing and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practical strategies to increase helping behaviors with minorities and general public in our communities. Participants(N=156) were randomly assigned to respond to a scenario which measured the intention to help either foreign workers or general public. Also, participants were given the scale of fairness and empathy to respo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1) empathy and fairness had main effect of the intention to help other persons and empathy and different targets in the unfair perception had interactional effect; (2) the intention to help foreign workers was positively related to fairness and the intention to help general public was affected by empathy. The results showed that according to the perceived unfairness in helping behavior situations, the role of fairness which empathy did not explain was found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mpathy and fairness in helping behavior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Key words : helping behavior, empathy, fairness, perceived unfairness